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pril 2025 Issue | Vol. 2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무디스 애널리틱스, 미국 관세로 인해 필리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page 1-2
- 1월 순외국인직접투자(FDI), 7억 달러 이상 유입 — page 2
-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없다: ASEAN 경제 장관들 — page 3
- 필렉스포트: 트럼프의 관세 일시 중단으로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져 — page 3-4
- BSP, 기준 금리 25bp 인하, 추가 인하 전망 — page 4-6
- 이제 기업 설립이 더 쉽고 빨라졌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 page 6-7

무디스 애널리틱스, 미국 관세로 인해 필리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April 11, 2025 | L.M.J.C. Jocson | BusinessWorld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성장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필리핀에 가하며 17%의 관세를 부과해, 3월 기준선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5.8%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희석된 10% 관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17%로 복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전망치는 정부가 설정한 올해 6~8% 성장 목표치보다 낮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도표에 따르면, 필리핀에 부과된 17% 관세는 GDP에 -0.4%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전 발표된 대부분의 고율 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선언하고, 대신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4월 기준선은 이러한 관세가 결국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Shoppers crowd Baclaran Market in Parañaque City.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설령 대부분의 교역 파트너국에 대한 10% 관세가 미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되더라도, 역내 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경제들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덧붙였다.

이러한 관세는 필리핀의 대미 수출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필리핀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수출 대상국 중 미국은 약 17%를 차지해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또한 중국의 성장 둔화는 서비스 수출, 특히 관광 관련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2019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한 가장 큰 외국인 그룹이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가장 큰 변수는 협상이 관세의 범위와 지속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이 75개국에 대한 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193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 시장의 급락과 변동성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적인 불확실성 증대가 가져오는 부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2025년의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도 약화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 또한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관세 조치들이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관세 하에서는 아시아 전역의 인플레이션이 무역과 성장 둔화로 인해 억제될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관세로 인해 생산재 및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2]

무디스 애널리틱스, 미국 관세로 인해 필리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Cont. from page 1]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필리핀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4월의 통화정책 결정에 이어 하반기 중 25bp(베이스스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은 이르다’

한편 피치 솔루션즈(Fitch Solutions) 산하 BMI는, 미국이 필리핀에 17%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필리핀 GDP 성장률이 올해 5.2%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BMI는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는 현행 6.3% 성장 전망에서 약 1.1%포인트 감소하게 되어, 정부의 6~7% 성장 목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다만, 전망치를 수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했다.

“향후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가 필리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단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I는 필리핀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입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적 관계는 협상에서 필리핀에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BMI는 덧붙였다.

BMI는 올해 필리핀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GDP 대비 5.7%에서 5.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가 설정한 5.3%의 재정적자 한도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큰 재정적자를 감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BMI는 밝혔다.

BMI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학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 0.50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가 6%의 성장 목표 하한선을 달성하려면 GDP 대비 지출을 현재 21.9%에서 약 1.4%포인트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Luisa Maria Jacinta C. Jocsos with inputs from A.R.A. Inosante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4/11/665343/moodys-analytics-trims-phl-growth-forecast-on-us-tariffs/>

1월 순외국인직접투자(FDI), 7억 달러 이상 유입

April 11,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7억 3천1백만 달러에 달했다.

목요일 늦게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FDI 순유입은 2024년 1월에 기록된 9억 1천4백만 달러 순유입보다 20% 감소한 수치였다.

FDI는 비거주자가 거주 기업에 최소 10%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비거주 자회사가 자사의 거주 직접 투자자에게 이루는 투자도 포함된다.

이것은 자본금, 이익 재투자, 그리고 차입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1월 순유입 감소의 원인이 비거주자의 채권 투자 순유입이 8억 3천3백만 달러에서 5억 1천9백만 달러로 감소한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비거주자의 자본금 투자 순유입이 1천1백만 달러의 순유출에서 8천8백만 달러의 순유입으로 전환된 덕분에 일부 완화되었다.

또한, BSP는 비거주자의 이익 재투자도 36% 증가해 2024년 1월 9천2백만 달러에서 1억 2천5백만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1월 FDI의 주요 출처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였다.

BSP는 “이 투자는 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부동산 산업에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7906>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없다: ASEAN 경제 장관들

April 10, 2025 | Agence France-Presse | ABS-CBN

ASEAN 지역 블록의 경제 장관들은 4월 9일에 발표된 최근의 일방적인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어떠한 보복 조치도 시행하지 않겠다”고 목요일에 약속하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권인 ASEAN은 미국이 최근 도입한 일방적인 관세, 특히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관세와 그 후 4월 9일의 최근 연기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장관들은 화상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은 “무역 관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개방적인 소통과 협력이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ASEAN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 회의는 말레이시아의 투자, 무역 및 산업 장관인 탕쿠 자프를 아지즈가 주재했다. 말레이시아는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SEAN의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다.

회원국들은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가장 강력한 세금이 부과된 국가들 중 하나였다.

제조업 강국인 베트남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46%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인접한 캄보디아는 주요 서구 브랜드의 저비용 의류 생산국으로 49%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기타 ASEAN 회원국들 중에서 높은 세금을 부과받은 나라는 라오스(48%), 미얀마(44%), 태국(36%), 인도네시아(32%)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국인 말레이시아는 24%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받았다.

브루나이는 24%의 세율을 부과받았고, 필리핀은 17%, 싱가포르의 10%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Source: <https://www.abs-cbn.com/news/world/2025/4/10/no-retaliatory-measures-against-us-asean-economic-ministers-1622>

필렉스포트: 트럼프의 관세 일시 중단으로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져

April 11, 2025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수출업체 연합(Philexpor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상황을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Philexport의 세르히오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 회장은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세계 무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상황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일부 수출업체들이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기다리고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이 그룹은 올해 1,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무역산업부(DTI)는 2024년 전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1,03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8%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우리는 경쟁자들이 실제로 미국 구매자들에게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Philexport의 최고 회장은 필리핀은 미국과의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양허안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하며, “90일 후 실제 관세가 무엇이 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ont. page 4]

필렉스포트: 트럼프의 관세 일시 중단으로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져

[Cont. from page 3]

협상의 시간 - 경제학자

하지만, RCBC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르(Michael Ricafort)는 수출업체 연합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리카פור는 문자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관세 일시 중단이 필리핀에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카פור는 "다음 3개월 동안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필리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90일간의 관세 완화 기간 동안 많은 국가들과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필리핀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할 시간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리카פור는 "필리핀의 수출은 ASEAN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필리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추가 세금은 구매자에게 전가되거나, 경쟁 상황에 따라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일시 중단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리카פור는 "그 영향은 특히 중국의 125%의 높은 미국 수입 관세와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 성장에 미치는 0.1%의 GDP 영향에 대해 리카פור는 이 수준이 "필리핀 GDP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필리핀 경제는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리카פור는 "필리핀의 상품 수출은 매년 주요 ASEAN 국가들의 수출에 비해 3배에서 5배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의 높은 미국 수입 관세와 다른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영향

세계적인 관점에서 리카פור는 많은 국가들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10%의 낮은 기본 수입 관세율이 4월 2일에 발표된 이전의 높은 상호 관세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에 대한 125%의 대미 수입 관세는 여전히 미국 소비자, 기업 및 기타 기관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리카פור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 관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25%) 더 높은 비용/가격을 발생시키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84%) 더 높은 가격을 발생시켜, 미국과 중국 제품의 생산 비용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다른 국가와 세계 공급망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ilexport-situation-more-uncertain-with-trumps-tariff-pause/](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ilexport-situation-more-uncertain-with-trumps-tariff-pause/)

BSP, 기준 금리 25bp 인하, 추가 인하 전망

April 11,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글로벌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했다고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BSP 총재이자 통화정책위원회 의장인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목표 역환매조건부채권(RRP) 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또한 하루 overnight 예금 및 대출 시설의 금리를 각각 5%와 6%로 조정했습니다.

[Cont. page 5]



File photo shows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headquarters in Manila.

BSP, 기준 금리 25bp 인하, 추가 인하 전망

[Cont. from page 4]

“통화정책위원회는 글로벌 GDP 성장을 둔화시키고 국내 경제 활동에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더 어려운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있다”고 레몰로나 총재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된 17%의 상호 관세 발표도 고려되었으며, 이는 “많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고 그는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여전히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그는 덧붙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발표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관세가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몰로나 총재는 BSP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세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충격 완화할 것

제노 아베노하(BSP 부총재)는 글로벌 성장 둔화가 국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방 리스크는 일부 존재하지만, 앞으로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아베노하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6~8% 목표 범위 중 하단에 근접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외부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레몰로나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낮은 쌀 수입 관세와 글로벌 수요 약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는 운송비, 유류 가격, 공공요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BSP는 2025년의 리스크 조정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과 2027년 전망치는 각각 3.3%, 3.2%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목표 범위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BSP는 밝혔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보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전망과 성장 리스크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정책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라고 총재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추가 금리 인하’

보다 도전적인 외부 환경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운데, 레몰로나 총재는 BSP가 올해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번 더 인하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안에 분명히 추가 인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레몰로나 총재는 말하며, 모든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재는 금리 인하가 한 번에 25bp씩 ‘작은 걸음’(baby steps)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번 더 인하할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인하 횟수보다 회의는 더 많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통화 완화 사이클이 2025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에는 BSP가 더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

레몰로나 총재에 따르면, BSP의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다소 제약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 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베노하 부총재는 이전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수요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BSP가 이제 100bp를 인하함으로써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6]

BSP, 기준 금리 25bp 인하, 추가 인하 전망

[Cont. from page 5]

“앞으로 통화정책을 덜 제약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완화 조치들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국 그 격차를 메우게 될 것입니다.”

‘75bp 추가 인하 예상’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BSP는 올해 정책금리를 4.75%까지 낮추기 위해 75bp(0.75%p)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시언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신흥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겔 찬코(Miguel Chanco)는 BSP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세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코는 “3월 수치 이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크게 재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평균 인플레이션이 올해 2.5%까지 더 둔화될 것이라는 당사의 컨센서스 하회 전망에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국제 유가 급락을 고려할 때, 그의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하방으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팬시언 매크로이코노믹스는 또한 미국이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필리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도 향후 수개월 내 BSP가 정책금리를 75bp 더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조 마허(Joe Maher) 이코노미스트는 “10%의 보편적 관세, 미국 무역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및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필리핀 수출 수요에 여전히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마허는 레몰로나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식료품 및 교통비 인플레이션 둔화가 앞으로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앞으로 BSP는 추가 통화 완화 조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지속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SP는 지난 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무역정책 관련 글로벌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금리를 5.7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BSP는 2023년 2월 기준금리를 6%로 50bp 인상한 이후, 2024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총 75bp(25bp씩 세 차례) 인하하며 통화완화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Image credits: [EDWARDS | DREAMSTIME.COM](https://businessmirror.com.ph/2025/04/11/bsp-lowers-key-rate-by-25-bps-more-cuts-seen/)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4/11/bsp-lowers-key-rate-by-25-bps-more-cuts-seen/>

이제 기업 설립이 더 쉽고 빨라졌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April 10, 2025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The SEC said that applicants for company registration would no longer have to submit hard copies of physically signed or notarized registration documents, following its issuance of Memorandum Circular 3, Series of 2024, requiring the use of SEC Zuper Easy Registration Online (ZERO) for company registrations.

마닐라, 필리핀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등록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하고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필리핀에서의 사업 설립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EC는 2024년 제3호 회람(Memorandum Circular 3, Series of 2024)을 통해 기업 등록 시 SEC 초간편 온라인 등록 시스템(SEC Zuper Easy Registration Online, ZERO)의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이제 기업 등록 신청자들은 서명되거나 공증된 등록 서류의 인쇄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 등록을 위한 전자 간소화 처리 시스템(eSPARC)을 기반으로 한 SEC ZERO는 물리적 서명과 공증, 그리고 등록 서류의 인쇄본 제출을 없애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SEC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 SEC 사용자 등록 환경(eSECURE)과, SEC 제출 서류의 전자 인증을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활용하는 전자 제출 인증 포털(eSAP)과 통합되어 있다. [Cont. page 7]

이제 기업 설립이 더 쉽고 빨라졌다 — 증권거래위원회(SEC)

[Cont. from page 6]

2024년 7월, 위원회의 세 번째 디지털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출시된 SEC ZERO는 총 1,874개의 기업 등록을 촉진했다.

SEC 의장 에밀리오 아키노는 SEC ZERO가 위원회의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등록 서류를 인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언제 어디서나 기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키노 의장이 말했다.

“eSECURE를 통한 인증 절차와 eSAP를 통한 인증은 우리가 부정한 목적으로 기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기업들을 식별하고, 필요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SEC는 2025년 4월 7일부터 모든 국내 주식회사는 SEC ZERO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및 금융 회사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에는 전액 필리핀인 소유 기업과 외국 자본을 포함한 기업들이 포함된다.

SEC는 한편, 대출 회사, 금융 회사, 외국 기업들은 회람의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동안 기존의 eSPARC 처리 절차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종류의 기업에 SEC ZERO의 의무적 사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4/10/2434759/setting-businesses-now-easier-faster-sec](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4/10/2434759/setting-businesses-now-easier-faster-sec)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